

문 대통령 비핵화 촉진 외교 '시동'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와 북미 양측의 '계산법' 조율 시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촉진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북미 양측의 비핵화 '계산법'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오전 열린다. 이번 뉴욕 방문이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전격 결정된 만큼 문 대통령은 상당한 거리를 나타냈던 북미 양측의 비핵화 계산법을 맞추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는 비핵화에 대한 인식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 해제를 약속받길 원했다. 하지만 미국이 영변+4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미국은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 방침을 고수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마쳐야 제재 해제나 체제 안전 보장이 뒤따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여러 단계로 나눠 이행하는 '스텝딜' 해법을 내세우면서 미국이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그어온 이유다.

하지만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로 전환하면서 대화의 여지가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이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의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려 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환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북미 비핵화 대화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을 자처해 왔던 문 대통령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북미가 전체적인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행은 2~3 단계로 나눠서 하는 중재안을 구상했지만, 양측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가시화되면서 문 대통령이 양측 입장을 조율할 외교적



유엔 총회 참석 의의 브리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뉴욕 웨리튼 뉴욕 타임스 스퀘어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의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간이 열렸다. 아직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문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북한이 하노이 '노

딜' 이후 비핵화 대가로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전북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돌입

도의회 예결특위, 도민 안전·일자리 등 예산안 심사

제11대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는 23일부터 25일까지 예산심사 기법에 대한 김인철 지방의회연구소장의 강의 청취와 함께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 7월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이해 및 예산심사 기법'을 주제로 한 강의 청취 후 행정부지사의 정책질지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북도의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7조7932억원(본예산 대비 2255억원 증가, 2.98%↑)의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가 6조3054억원(1회추경 대비 2251억원 증가, 3.7%↑), 특별회계가 6189억원(1회추경 대비 4억원 증가, 3.9%↑) 규모이다.

이번 전북도의 2회 추경예산안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수소충전소 건립 등 수소산업 육성, 화재 등 도민생활 안전망 확충, 일자리 등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지난 정부 추경에 반영돼 전북도에 확보된 예산안을 주로 편성한 것이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증액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 본예산 삭감사업의 경우 삭감사유 해소여부,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타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꼼꼼히 심사할 예정이다.

황의탁 예결위원장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지리인 만큼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심사 준비에 애를 써 왔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에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도의회 예결위 정책질의 잇따라

- 황영석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노력을"
- 김명지 의원 "새만금갯벌리 도내 학생 참여 유도를"
- 이병도 의원 "복지 안전망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전북도의회가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서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황의탁 위원(더불어민주당, 무주)과 나기하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경기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전북도의 대책을 질문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독이 전부인데 이 소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북교육청과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철저히 개체준비로 세계갯벌리 대회를 통해 우리 전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인권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제)은 올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가 18.03%로 전국에서 끝에서 두 번째임을 강조하며 국가적인 경제상황 등 여러 여건이 어렵지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전북도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병도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은 지난 전주 서도송동 여인숙 화재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을 주지시키고 우리 사회의 화재안전 사각지대와 허술한 복지 안전망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정읍·인천공항 노선 고창까지 연장 방안 추진

민주 정읍고창지역위, 노선 운행 내달 하반기 재개 전방 따라

정읍·인천국제공항 시외버스노선의 운행이 10월 하반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국토부가 전북도의 조정안(경기고속 2회, 전북고속 2회, 호남고속 2회, 대한고속 1회 총 7회 운행)을 10월 하반기에 개최되는 노선 조정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알려졌다.

2017년 2월 17일부터 정읍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던 시외버스 노선(호남고속과 경기고속 각 3회)에 대해 2016년 11월 1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행정중지 판결로 2019년 5월 2일에 운

행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 출국하는 정읍, 고창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운 위원장의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시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경기고속 등 업계 간의 이해충돌을 조정하여 노선운행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정읍·인천국제공항 노선이 재개되면 고창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 사과값 폭락 피해 최소화

민주 안호영 의원, 사과 농가와 간담회 열고 대책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장수 사과값 폭락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안 의원은 최근 장수군의 행정·사과 농가와 간담회를 열고 긴급 유통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안 의원은 우선 서울 등 자매결연도시, 우체국 홀소싱, 재경·재전 등 향우회, 지인 등을 활용한 직거래망을 통한 사과 판매가 필요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역설했다.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으로 모든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와 노후 파수원 폐원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올해 4월 '장수 애플카운티 활성화 프로젝트'가 농식품부의 농촌신

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국비 49억원을 확보한 만큼, 애플팩토리 생산라인 신설 등 가공활성화, 통합유통센터 건립 및 홍보마케팅 등 유통 전문화에도 가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장수군의 사과 생산량은 2만9700여톤으로 지난해 2만2천톤보다 35%(7천700여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추석 사과인 홍로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천톤이 늘었다.

하지만 가을장마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추석 전 출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전체 홍로 생산량 중 20%에 달하는 3500여톤의 가격 하락과 판매부진을 겪고 있다.

장수군의 사과산업은 지역 농업 생산액의 30.7%를 차지하고, 브랜드 가치도 2017년 기준 28억원에 이르는 등 장수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